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을 말하다 포럼

I. 행사개요

II. 행사내용

1부. 기후위기와 예술의 관계 맺기

2부. 기후위기의 시대, 예술정책을 상상하다

1. 행사개요

1. 배경 및 목적

-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이슈가 중요해짐에 따라, 문화예술부문에서도 기후위기와 예술의 관계설정 및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제기됨
- 기후위기 시대에 예술이 가진 가치 및 기후위기 대응 참여에서 문화예술부문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현장 중심의 공론장 개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소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예술 활동 관련 사회적 공유와 의견수렴을 진행,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정책'을 모색
- 생태문화, 기후위기 등의 전문성이 높고 지속적으로 현장 활동을 진행해 온 녹색전환연구소의 <녹색전환 공론장>과 협력하여 개최 : 논의의 전문성과 현장성 심화
 - ※ 녹색전환공론장 시리즈는 기후위기와 사회 각 분야를 교차하여 시민사회와 함께 공론장의 사회적 담론과 정책의 내용을 구성하고, 집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의 정리·게시를 통해 공론을 축적하여 사회적 논의 확장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며, 녹색오리 공론장(greenduck.kr)을 통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고자 함. 11월에 예정된 여덟 번째 녹색전환 공론장의 경우 기후위기와 문화 그리고 예술의 교차지점을 살피고 기후위기 시대 예술과 문화의 현황과 역할, 사회적으로 기후위기가 소통되는 하는 방식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함

2. 포럼 개요

- 행사명 :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을 말하다
- 주최 및 주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녹색전환청년그룹, 녹색전환연구소
- 일시 : 2021년 11월 24일(수) 14:00~17:00
- 진행방식 : ZOOM과 YouTube를 활용한 온라인 토론회
- 토론회 구성

구분	구성(안)
1부 (60분)	<p>주제 : 기후위기와 예술의 관계맺기</p> <hr/> <p>사회 : 성지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소위원회 위원/녹색전환청년그룹) 기조발제 : 왜 기후위기와 예술인가 : 김정은(다원예술) 사례발표 : 기후위기 예술 사례(각 10분 발표) · 김보람 / 미디어아트 작가, 무제의 길 · 곽수아 / 서강대학교 · 박지선 / 독립 프로듀서(프로듀서 그룹 도트) · 김지연 / 사운드아트</p>
2부 (80분)	<p>주제 : 기후위기의 시대, 예술정책을 상상하다</p> <hr/> <p>사회 : 정유란 / 문화아이콘 대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코로나19대응 팀장 · 발제 1: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 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 / 나혜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 책임연구원) · 발제 2: 우리에게 이런 예술정책이 필요하다 / 성지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소위원회 위원/녹색전환청년그룹) · 발제 3 : 예술뉴딜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 이원재 (문화연대 기후위기 운동모임 Still Aliv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p>
20분	종합토론

II. 기후위기와 예술의 관계 맺기

1. 주요 내용

- 기후위기 관련 예술 활동의 의미와 방향 진단
- 미디어아트, 시각, 소리, 다원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진행된 활동 사례 공유

2. 참여자 발언 요지

1) 기조 발제 : 기후위기시대, 예술로 살아보기

○ 김정은 (다원예술작가, 콜렉티브 뎅굴)

- 기후위기는 거대한 문제이며 인간에게 내재된 생활 양식의 변화까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래서 위기를 수치화하거나 위기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시각자료들이 기후위기를 알리기 위해서 사용되지만, 그 너머를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
- 그 너머를 상상하기 위해 예술의 역할이 필요함. 기후위기는 본질적으로 관계맺기의 문제임. 에너지, 문명, 기술로 접근하기 전 기후위기는 나 자신, 타인 그리고 다른 비인간 존재들과 관계맺는 방식을 다시 써야 함.
- 기후위기 시대에 예술은 보기의 방식이 아니라 살아보기의 방식으로 기후위기와 관계를 전환시켜야 함.
 - 예술은 보여주고 보는 시각 위주 관점에서 탈락돼온 촉각적인 사유방식을 회복시킴. 이성과 생각, 정보와 지식의 영역에서 타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몸에 기반한 감각으로 느끼며 만나도록 함.
 -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로 살아본다는 것은 곧 기존의 자본주의 구조가 요구했던 경쟁과 성장, 착취와 투쟁 중심 흐름에서 다른 감각을 자극하고 서로 접촉, 교류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
- 결국 예술은 사람이 타자와 동등하게 관계 맺도록 하는 연구이면서 이 방법이 적절하게 작동하게끔 하는 촉매제이면서 동시에 서로 소통하고 교육하고 돌보는 일
-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해보는 실험이자 도전이라는 점 즉 실패를 기꺼이 감수하는 태도로서 '예술로 살아보기'. 누구든 이제부터 살아봐야만 알 수 있는 시대인 기후위기시대이기 때문에 기꺼이 실패를 감수하면서 시도하는 예술의 태도가 필요함.
- 이를 위해 보기의 미학에 대한 변화와 논의가 필요. 기후위기가 사업이나 작업의 소재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작업의 방식, 그 과정과 밀접하게 연동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예술의 모습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더 많이 필요. 또, 살아보기를 실천하는 예술창작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실험과 연구, 논의와 지원이 필요하고 말 그대로 새로운 예술 살기를 보완해줄 수 있는 미학적인 관점의 전환 필요

2) 기후위기 예술 활동 사례

(1) 움직이는 숲, 불타는 집

○ 김보람 (무제의 길)

- 어플을 만들어서 관객이 각자의 선택에 따라 다른 스토리를 읽거나 미션을 행하면서 관람하는 작업, 3D 입체사운드로 사운드로 만들어진 가상의 공간에서 스토리를 관객이 공감하게 하는 작업 등을 시도했음.
- 2020년 기후변화 레지던시에 참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아티스트로서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고민하게 됨.
- 보드게임 '움직이는 숲' 제작 : 2020년 12월에 처음 발표해 1년간 베타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수정보완을 거쳤고 현재는 다음 버전을 마무리하고 곧 발표 예정.
 - 스토리 요약 : 현재 기후위기로 위험에 처한 침엽수를 구하는 게임. 운동과 연구자, 정치인, 기업인이 총 4명 플레이어 중 한 명이 돼서 각자의 직업상의 능력을 발휘해서 나무를 살리는 내용
- 위 보드게임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시 '불타는 집'이라는 전시 진행. 숲을 크게 만들어서 관객이 이동하면서 나무와 연구소에 얽힌 이야기를 경험하게 되는 웹게임, 스토리텔링, 인스톨레이션의 작업
- 불타는 집 전시의 두 가지 목표
 - 전시용 쓰레기를 최대한 만들지 말자 (재활용 폐지 활용, 종이테이프 활용)
=> 전시 후 쓰레기 30리터 발생
 - 사용되는 전력량을 최소로 하는 제품제작
=> 전시에 사용했던 모든 기기의 전력을 측정해 일일소비전력량은 약 6킬로와트만 소비
- 참여자들과 전시 목표와 내용에 대한 합의 과정 이끌어냄. 기후위기를 고민하면서 작품을 만든다는 건 그간 했던 작업들과 다른 종류의 뇌를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새로운 경험의 축적이 필요

(2) 미디어아트 - 웹국토자산부, 그린버스 프로젝트

○ 곽수아 (서강대학교)

- 미디어아트 작업을 주로 해 왔고 최근에는 작업을 기후위기와 연계해서 과학기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고민하고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고민
- 웹국토자산부(2019년): 데이터는 언제나 물리적인 공간에 저장돼 있고 이런 데이터를 생산, 저장을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함. 즉 멀지 않은 미래에 화석연료가 부족해지고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줄어드는 등 자원이 고갈됐을 때 인간이 웹자원을 지금까지처럼 자유롭게 쓸 수 없을 거라는 뜻. 웹자원부도 다른 자원과 마찬가지로 고갈되는 유한한 자원이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므로, 언젠가 고갈이 될 테고 자연스럽게 배급불평등에 따라서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런 사회문제와 통제를 제어하기 위해서 중앙통제가 들어가면서 민주주의가 파괴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업
- 그린버스 프로젝트 : 영국과 한국에서 각각 선발되었던 작가들이 몇 주에 걸쳐서 캠프형식의 워크숍
 - 이 기간 동안에는 각국의 기후위기 관련 활동가, 예술가, 연구자들이 초청돼서 강연을 진행했고 함께 기후위기 관련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기후위기 돌파를 위한 유토피아 상상화 그리기 등
 - 디지털 디자이너 작가와 협업 진행해 친환경적인 데이터센터 건설은 가능한지, 인간이 데이터 없이 살 수 없는 해결 불가능한 어색함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 질문
 - 퀴어이론 도입 : 2개의 섹스로 이루어진 남성 여성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그것만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되는 개념을 넘어서 그 개념 자체가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뿐이고 이분법이 아니고 스펙트럼

으로 세상을 이해할 것을 제시한 것

- 하지만 많은 환경운동들이 자연적인 것이 무엇인지 찾고 어떤 것이 정상인지 찾아서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어오고 있다고 느끼면서 여기에 퀴어이론을 도입해 본 것. 산불이나 자연재해 같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볼 때 느껴지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 이런 현상을 스펙트럼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
 - 즉 정상이나 자연스러운 것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폭력적이라고 여기며 '정상'에 권력을 주지 않음으로써 인간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퀴어생태학
 - '비논리적인 사랑' 캠페인 : 사랑은 급진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 '경계를 허물고 권력을 퀴어링하라' 는 문구를 프린트해서 시위를 직접 하고 그 장면을 아카이빙해서 웹사이트에 전시. 잃어버린 연결을 찾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비논리적인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
- 퀴어한 미래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계기였고, 특히 영국작가들이랑 작업을 하면서 영국은 확실히 한국보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책임성이나 긴급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있어서 바로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작업이 많은 경향을 파악함.

(3) 예술터밭 예술가 레지던시 기후변화

○ 박지선 (독립프로듀서, 프로듀서 그룹 도트)

- 화천에서 매년 열리는 산천어 축제는 물고기를 대량양식해서 이루어지는 반 생태적 지역 축제인데, 기후 온난화로 지난 2년 간 축제를 제대로 치르지 못함. 이 현실이 생태 전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여감.
- 기후위기에서 예술의 역할 : 예술 작품, 활동으로 이슈가 생기고 사람들 관심이 모이면서 문명이 그것을 위협으로 식별할 수 있음. 전 지구적 차원에서 나(기획자, 예술가, 스태프 등)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나의 문제로 정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
- 2020년부터 화천의 예술터밭이라고 하는 예술가 레지던시 공간 운영
 - 주요 논의 :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의 역할과 책임, 인간중심주의에 저항하기의 의미 등
 - 주요 활동 : 드로잉, 영화, 그림책 그리고 액티비스트 리서처, 기획자, 웹디자이너 등이 모여서 6개월 동안 간헐적으로 모여서 워크숍을 진행
 - 2020년 주제는 '화천에서 환경을 말하다', 2021년 주제는 '관점의 전환, 세상을 보는 시선들'
- 기상학적, 생태학적, 예술적, 인권학적, 사회학적 관점 등 다양한 각도에서 기후위기가 우리 삶 전체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공동 리서치, 공연, 토론 등 진행. 이후 이 공동리서치를 기반으로 참여 작가들이 개별리서치를 하게 되고 개별리서치를 통해서 각자의 주제 선정(지역의 커뮤니티와 숲의 절멸, 잃어버리는 감각, 예술가와 기후위기, 기후위기와 로컬, 이동하는 생명, 인간과 비인간, 야생, 가축 농장 등)
- 온라인 레지던시를 통해서 함께 개별리서치한 내용을 공유하고 확장하는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 오픈터밭 개최. 공동 리서치 외에도 개별 리서치한 것도 함께 공유. 서로 공유함으로써 공유 가운데 접점을 만들어내고 그 내용이 더 서로에게 영감과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서 더욱 확장되는 시너지 발생. 그다음에 참가자, 예술가들이 서로 다른 장르간에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해서 같이 공동워크숍 진행하기도 함.
- 연대와 협력 강조 : 작년 참여한 작가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해 참여하는 작가와 연결하고 그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 형성

(4) 사운드 아트 - 생명연습

○ 김지선 (사운드아트)

- 활동하는 키워드 : 생태, 듣기, 기록, 전송 등. 실외의 소리를 레코딩하고 음향적 사건이 벌어지는 맥락에 관심 두고 어떤 것을 사건으로 보는지, 그것을 어떻게 소리를 기록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작업을 함.
- 생명연습 : 2021년 여름, 최근에 탈영역우정국에서 기록한 지구 지구대라는 전시에 참여하면서 시작함. 주로 바깥에서 소리를 듣고 기록하는 형태로 날씨라고 하는 자연 현상을 통해 어떤 공명이 일어나는지에 관심.
- 기후위기가 일상에서 감각적으로 경험되기 어려움.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린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됨. 멸종반란한국이라고 비폭력 불복종 시민운동 네트워크와의 만남을 통해 그 안에서 느껴지는 연결과 돌봄을 노래나 구음을 통해 지역의 생태활동가, 기후활동가들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 주로 산책을 하는 집 뒷산에서 시작을 해서 강원도 공배령 그리고 다시 동네 생태활동을 하는 친구의 뒷산, 마지막에 기후활동을 하고 있는 멸종반란에서 만난 여러 기후활동가들과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연결의 감각들을 담음. 이 과정 자체가 결과물일 수도 있음. 말을 걸고 연결이 되고 접촉을 시도하고 접촉을 시도한 이후에 다시 나의 경계를 바라보는 일련의 과정을 담음.
- 이 작업을 통한 변화 : 예술 작업 안에 사람이 중요하게 들어오고 또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서, 인간이라는 보편 일반 인간, 그 범주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회 안에서 계속 탈락, 누락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됨.
- 우리가 기후문제를 이야기할 때 종종 미래 문제, 미래 세대 문제, 아직 오지 않은 문제, 추상화되고 미뤄지는데 실제로는 지금 여기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단지 생각이나 추론만이 아니라 어떻게 몸으로써 감각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발굴되어야 함.
- 기후라는 것이 숫자나 데이터, 그래프로써 기후변화, 기후위기라는 것들이 감각되고 재연되고 출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상이나 개인의 단위, 시간의 단위에서 오늘의 단위에서도 분명 일어나고 있고 기후위기 관련 작업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됨.

III.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 정책을 상상하다

■ 주요 내용

- 발제 1. 기후위기시대의 예술 정책 방향
- 발제 2.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을 위한 제언
- 발제 3. 예술뉴딜의 정책 방향

발제 1.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

○ 나혜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연구원)

- 지속가능발전에서 문화의 역할은 계속 강조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에서 예술의 특징과 역할 등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음. 문화예술이 과학의 복잡한 언어와 데이터를 예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지와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
- 특히 기후문제를 다루는 예술작품, 활동은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책임감, 두려움 등의 감정을 유발함으로써 지금, 현재에 대한 성찰과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래서 문화예술이 환경친화적 행동에 대한 의지, 태도를 형성하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
- 예술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대안을 모색하는 플랫폼으로 역할하고 기후문제의 당사자, 예술가,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에서 권한을 부여받고 공동의 미디어, 창의적 문제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관계맺기 가능
- 기후위기에 참여하는 3가지 예술적 접근
 -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미디어 작품을 만들거나(in art)
 - 예술적이고 창조적 과정으로 다양한 분야와 창의적 프로세스에 참여(with art)
 - 기후와 연관된 질문을 촉발시키는 커뮤니티 아트(through art)
- 기후변화 대응에서 예술의 역할에 관한 해외 사례
 - 파리기후위기 정상회의 때 열린 아트콥21 : 예술가들이 기후위기 당사자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색, 협력하고 그리고 결과를 대중에게 알리는 활동을 4개월간 대규모로 진행
 - 어스 스피커 앱 : 어린이들이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어떤 문제나 상황에 대한 아이디어, 현황, 해결 촉구 등에 대해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메시지들이 정치가나 행정가들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추도록 한 어플리케이션.
 - 미국 국립예술기금 플로리다 하이워터라인 프로젝트 : 주민 예술가와 전문가들이 지역 수준에서 기후위기 회복탄력성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 과학자는 기후변화로 침수되는 경로를 개발하고 역사학자들은 기후와 관련된 역사적 사료들을 아카이빙하고 예술가들은 침수경로를 시각적으로 표기하는 작업을 주민과 함께 진행
 - 미국 시카고 페 고가 철로 재생 : 예술가, 엔지니어, 조경사 커뮤니티 등이 참여해 지역 기반 활성화 작업. 기존 도시 재생 논의와 더해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에 기후, 온도에 예민한 식물들을 배치.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지나다니면서 이 지역의 기후가, 온도가 어떻게 차이가 있어지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함.
 - 뉴바우하우스 운동 : EU는 최근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문화예술의 가능성에 주목해서 대규모 문화이니셔티브를 추진. EU의 그린딜이 하드웨어, 기술적 접근으로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과학, 기술, 문화예술 연결을 통해서 유럽의 환경, 경제, 문화적 변화를 꾀하는 여러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

- 문화예술 부분의 탄소중립 참여 지원 사례
 - 이파카는 2014년에 문화예술부문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추진을 위한 이니셔티브 제안 : 증거 기반 현황 진단하고 환경계약과 성과보고, 예술중심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제안
 - 영국의 예술위원회 : 2012년부터 기금지원 조건으로 환경 성과 보고를 도입해서 실제 문화시설, 활동에서 탄소배출이 나타나면서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개발, 사용. 줄리의 바이시클이라는 파트너 기관이 전방위적으로 문화예술계에 녹색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환경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컨설팅 및 탄소배출저감 분석 툴 개발
- 예술 정책 방향
 - 문화예술위원회 특히 정책소위원회가 기후위기와 예술정책이라는 연속 워크숍을 진행해 미학, 정치학, 환경정책 분야와 예술가의 이야기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서 예술 정책의 방향성 논의를 이어옴.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지원의 외연을 확대 : 기존보다 확장된 형태로 융합, 통합의 형태의 활동을 지지할 수 있는 정책. 즉 한국형 뉴딜과 연계한 이니셔티브 필요
 - 문화예술분야의 그리닝 기반 조성
 - 공공부문의 기후대응 리더십 실천

발제 2. 우리에게 이런 예술정책이 필요하다

○ 성지수 (녹색전환청년그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소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 내에서 예술정책 제안서를 준비하면서 현장 예술인들 또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직접 들은 예술지원정책을 정리한 내용
- 예술인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며, 예술인으로서의 작업이 시민-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분열되지 않고, 예술 작업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구함.
- 예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대 : 예술 작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예술인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일상적 재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위기 발생 사후에 경제적 피해&손실에 대한 보전만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현재 방식 개선)
 - 예술인 주거, 먹거리, 이동(교통) 등 전반적인 삶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 필요
 - 예술 활동 돌봄 지원, 생태 및 돌봄 등 사회적 일자리와 활동 연계
 - 지원그룹, 네트워킹, 심리상담,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병행
- 네트워킹 및 정보 공유 플랫폼에 대한 지원 확대
 - 아티스틱 리서치(네트워킹, 워크숍) 작업 지원 확대
 - 자료 아카이빙 및 이용 활성화 지원
 - <기후위기와 예술> 관련한 지속적인 공론화 장 마련
- 창작 활동 및 단체 운영의 녹색화 지원 : 문화-예술분야 탄소발자국 지표와 산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컨설팅 지원, 현장 녹색화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조원
- 기후위기와 더불어 더욱 다원화된 예술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의 필요 : 기존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창작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필요, 기존 예술현장 내부의 불평등한 환경 및 주변화 되어 온 예술에 대한 제고 필요, 확대&다원화된 예술현장에 대한 이해 및 제도적 지원의 필요

발제 3. 예술뉴딜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하기

○ 이원재(문화연대 기후위기 운동모임 Still Aliv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 : 인간중심주의가 재난사회를 불러 일으켰고 그로 인한 사회변동이 심각해진 현실. 인공지능 등 기술 중심주의와 인권문제가 심각하며, 고령화 사회로 진전하고 있음. 이런 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기후위기를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함.
- 그린뉴딜을 일자리 관점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예술뉴딜의 중요성 부각. 지금까지의 패턴으로는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화적 접근이 필요. 삶의 가치와 태도로서 우리 인간이 늘 정치, 경제와 마찬가지로 삶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가져왔던 삶의 태도로서 문화적 접근 필요. “기후위기는 문화위기이자 상상력의 위기다” (아미타브 고시, 대혼란의 시대)
- 탄소중립의 딜레마
 -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흡수해서 숫자를 0으로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 않음.
 - 기후위기에 대한 성찰, 인지, 감각의 문제이며 곧 삶의 방식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
- 문화적 접근의 5가지 층위
 - 기후위기 시대의 의미화
 - 삶 - 체제의 전환 - 기후위기 시대의 '삶의 양식' 전환
 - 문화 분야의 탄소중립 제도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 생태문화와 예술 창작
 - 문화 분야 공공영역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을 위한 성찰과 실천
- 단순히 환경분야, 환경이슈와 문화정책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재난사회에 문화예술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변화하고 기후위기 시대와 문화의 관계성과 역할을 제시
- 그런 맥락에서 이런 정책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린뉴딜이 중요함. 본래 그린뉴딜은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기후위기 문제, 불평등 해소, 탈탄소 경제전환이라는 3대 축이 그린뉴딜의 기본정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술을 연계시키면 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모든 부처에서 기후위기 관련된 문화 사업은 아주 미비하고 형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문제를 만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결국 탈성장이나 정의로운 전환, 지역화, 삶 체제 전환 이런 것들을 예술과 함께 진행되어야 함. 결과물 중심이 아니라 예술과 예술인 중심으로 지원해야 되고 예술가치에 기반한 형식적 일자리가 아니라 일을 형성해야 되고 이런 리서치, 과정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고 중장기 계획 같은 거에서 정책을 지원하면서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 가능해야 함.